

기술계의 巨木 김충복 前회장 殞命

구립 13일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장으로 거행



金忠福 본회 전 회장이 서울대 병원에서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故 金忠福 전회장은 지난해 9월 지병인 당뇨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었으나 병세가 악화 지난 12월 11일 09.17분에, 유족들과 친지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6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故 金忠福 전회장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

인 11월 17일께부터 고인의 병세가 더욱 위독해지자 본회는 즉각 서면을 통한 이사회를 갖

고 의견을 물었던 결과 대부분의 이사들이 흔쾌히 협회 장으로 할 것을 의결, 사후 처리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던차 토요일인 12월 11일 부음을 받기에 이르렀던것 -.

본회는 1차로 이사전원과 20개 지회장 그리고 원로를 중심으로한 59명의 장례위원을 정하고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진행, 13일 09.25분을 기하여 협회장을 거행했다.

吊辭

花國의 새 세계로 가시어 편히 쉬소서

우리나라 제과산업계에 큰 별로서 업계발전 에 크나큰 획을 그어주셨던 故 金忠福 고문께서 지난 12월 11일, 그렇게도 붉게 떠오르는 새 아침에 他界 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면서 절령 가라 앉는 듯한 가슴을 짓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다시 못을 길을 쉽사리 떠나실수가 있었던 말 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故 金顧問께서 別世하셨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믿기지 않는 애 통한 심화로 故人의 영전에 이 글을 드릴수 밖에 없게된 것이 못내 야속하기만 합니다.

金忠福 고문께서 이렇듯 쉽게 떠나신 것은 우리 제과업계의 크나큰 손실이며 모두를 다 잃어버린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故人께서 평생을 지녀왔던 장인정신

이 그러하며 심오한 기술을 터득하고 지니시어 젊은 시절부터 鬼材로 알려져 온데서 더욱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제빵·제과분야에 接木시키고 이를 조화시킨 技術은 탄복의 경지를 넘어 하늘에서 낳은 분으로 定評되었고 심지어는 1백년에 한번 나올정도로 고까지 입을 모아 왔던 까닭에 그 안타까움을 더욱 금치 못하게 합니다.

1956년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태극당에 몸담아 이름난 업소로 키우신 외에 뉴욕제과를 비롯한 풍년제과를 두루 편력하시면서 한결같이 名所로 육성하신 한편, 많은 후진들을 보란듯이 키워내신 공로는 業界史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특히 故人께서 남기신 발자취 가운데 우리

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것은 1973년부터 한국 제과기술협회장에 피선되어 6년동안 3기를 재임하면서 기술인들에게 장인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결속을 다져주셨으며 대화의 광장을 마련 해 주셨던 공과는 지 금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분으로 부터 先進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산파역을 맡아 우리나라 제과 기술향상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제과·제빵기능검정 심사위원겸 출제위원으로 기술인들의 자질향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룩해 주신 공과도 간과 할수가 없습니다.

제5회 서울국제빵·과자전 심사위원장으로 同大會를 진일보시키고 국제화 하는 데도 큰

사랑하는 이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날 본회 이흥경 회장은 조사를 통해 제과계의 별로서 업계발전에 크나큰 획을 그어왔던 故 金忠福 전회장의 별세는 우리업계의 다시없는 손실이며 巨匠을 잃는 아픔과 애통함을 그 어디에 비길데 없다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또, 고민의 친구 김종익사장이 40평생 고락을 같이하면서 이나라 제과문화를 꽃피우고 후진 양성에 힘 쏟던게 엇그제 같은 데 고인이 이토록 쉽사리 작별을 고하느냐는 복받치는 추도사를 낭독하자 장래가 숙연, 조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당일 10시 13분 후배들이 선도하는 장례행렬에 운구차가 뒤를 이었고 역시 운구차 뒤를 이어 많은 조객들이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에 속속 도착, 12시 17분에 조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관을 마쳤다.

故 金忠福 전회장은 1950년대 후반기에 제과업계에 투신, 40여년간 제과기술향상과 아울러 후진 양성에 크나큰 공헌을 해온바 있다.

몫을 감당 하셨습니다.

1987년 우리 협회의 제 15대 회장으로 피선된후 회원간의 人和를 위해서나 기술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쏟아 주신 흔적 하나하나가 업계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이자리를 한층 애절하고 애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더 주시고 업계발전을 위하여 더 남겨 주시고, 또 해주셔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건만 길지도 않은 63세 일기로 떠나시는 故人の 옷깃을 어이 잡으면 된단 말입니까!!

생각할수록 애통하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부디 花園의 새 세계로 편히 쉬소서.

1만 5천여 전국의 회원 이름으로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끝으로 유족들께도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吊辭에 갈음코자 합니다.

1993. 12. 13.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회장 이흥경

40여년간 정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기약도 없는 이별의 순간이 될줄은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고인은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스키도 잘 타는 멋쟁이였건만 어찌 이렇게 바쁜 걸음을 재촉 했던 말입니까-.

우린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어 온 사이인데 영영 다시 만날수 없게된 것이 이처럼 애통한때는 없었습니다. 마주 앉을때면 으레 이나라 제과계의 앞날을 이야기 했고 내일을 설계하는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생존시 아직도 할일이 많으니 다 마치고 가자고 했던 친구가 기약없이 떠나는 이 자리가 어이없이 한스럽고 애통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통곡하는 저 메아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실로 인생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정말로 만감이 오기는 이순간입니다. 눈물이 왜 이다지 앞을 가린단 말입니까 자식들이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고 공부도 다 마치지 못해 그들과 손길이 더 필요 하건만 이렇게 놓아둔채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눈물이 앞을가려 말을 이을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딸, 형님 동생, 친

척도계시고 선후배와 아끼던 제자들이 자릴 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잔을 올리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8년전인 1965년 앞선 나라의 기술을 도입, 낙후된 이나라의 제과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동경제과학교에 유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기 3년을 끈질기게도 의지로 극복하여 드디어는 동교로 부터 유학이 승인되고 심지어는 재정보증까지 하여 도일했던 일화는 업계에 숨은 이야기 입니다.

그후 고인은 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아무 것도 없는 이나라 제과계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 했으며 그때 그 공로가 이 업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제과문화 발전에 씨가 되고 뿌리를 이룬 공적으로 창연한 빛이 될 것입니다. 젊고 총명한 많은 후배들의 눈동자가 고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접어두시고 부디 좋은 세상에 편히 쉬소서.

고인에게 받히는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추도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993. 12. 13

친우 김종익

故人の 略歷

- | | | | |
|---------------|--------------------------|--------------|---------------------------------------|
| 1931. | 출생 | 1973. 8. | 일본 빵 연구소 수료(J.I.B) |
| 1955. 3. 31. | 홍익대학법정학부법률과 수료 | 1973. 8. | J.I.B 빵 기술사 시험 합격 |
| 1956. 10. | 태극당 입사(공장장 10년) | 1978. 2. 27. | 김충복과자점 경영 |
| 1968. 10. 10. | 일본식품학원동경고등제과학교 수료 | 1987. 2. | 사회법인 대한제과협회 회장 피선 |
| 1968. 8. 9. | 풍년제과 입사(공장장 5년 5개월) | 1991. 12. | 제5회 서울 국제 빵·과자전 심사위원장 |
| 1969. 6. 26. | 사단법인 제과기술협회 회장 피선 (3대역임) | 1968. 6. | 일본전국과자대전람회 한국 대표로 공예과자출품하여 기술 우수상을 받음 |
| | | 1968. 6. | 세계양과자 연맹 주최 17개국 대회에서 대회장상을 받음. |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장례위원

■ 고문 : 조승환, 이봉상, 이건배, 박병주

■ 위원장 : 이흥경

■ 위원(무순) :

권상범, 조성민, 강석중, 이정식, 최재호, 김지정, 김승도, 김병일, 박근성, 김종익, 엄응기, 김철진, 윤영주, 홍평우, 용성복, 권영오, 길창덕, 윤계선, 홍행홍, 손명실, 김태환, 이창근, 김생수, 김상엽, 박찬현, 최삼림, 고진근, 송계현, 서정현, 이보근, 박대춘, 문종동, 배제열, 윤영봉, 임택기, 김재명, 한중환, 김천길, 이재식, 신의우, 권종철, 김종갑, 이유하, 최준후, 김여숙, 박정웅, 양관승, 김호상, 박형섭, 박명환, 장진영, 김동주, 윤방춘, 안승호,